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일상의 장소와 자아의 표현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설아

# 일상의 장소와 자아의 표현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 설 아

# 인 준 서

박설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미술은 그 시대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이상적 시각 표현이다. 정확한 개요를 살펴보자면 ‘미술의 이해’의 책머리에서는 ‘일정한 세계상, 인간상을 미적,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동양권의 나라지만 서양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식주 생활에서도 서양문물에 익숙해져있다. 그러나 우리의 민족성과 전통문화는 생활과 정신에 깊숙이 남아있다. 본 연구자의 전공은 비교적 동양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고, 동 서양의 문화 속에서 개인적 관심과 주제를 미술이라는 시각 예술로 표현하고 있다.

순수 예술이라 할 수 있는 분야의 그림은 상업적인 디자인이나 광고, 공예보다는 더 주체적이고 주관적이며 형식이 자유롭고 다양하다. 개개인이 가진 관심에서부터 기호,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삶과 생활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 중에 공간은 많은 이들의 주제가 되었다. 가까이에 존재하기에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작업의 주제가 되어왔으며, 살아가는 생활에서 숨을 쉬면서 인식하지 않는 공기처럼 내가 인지하지 않아도 주변은 공간과 공간을 이루는 물상으로 가득하다. 본인 역시 끊임없이 공간을 마주하며 일상 속에 특정 공간과 경계에 대한 내용으로 작업을 시작했으며, 2011년 봄에 ‘찰나의 자리’라는 본인의 전시를 본 논고에서 주제로 다루게 되었다.

인간은 공간과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간다. 하늘과 땅 사이의 빈곳에 건물을 세우고 벽과 길을 만들어 공간 속에 공간이 생겼다. 그 물상들로 이루어진 공간과 존재자는 서로를 통해서 물리적 위치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공간의 형태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여 기억하며 때에 따라서는 추

상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본인은 그 중 경계 사물 요소에 대한 관심으로 경계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사물이나 장소가 일정 기준에 의하여 분간이 되는 한계라는 보편적인 의미와 존재자와 외물이 함께 구성하는 육경(六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경계가 간단하게 장소나 그것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내가 우주를 구성하는 일체의 모습을 가지기도 한다. 연결과 소통의 사물이자 안정감과 방어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외부 환경에 의해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경계를 볼 수 있었다. 그 다양한 의미들이 본인의 작업과 장소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인간은 공간의 존재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우리는 장소에 따라 선호하거나 꺼려지는 공간이 있고, 안정감과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객관적인 물질로써 존재하는 공간을 이루는 사물들이 보편적이지만 존재자들은 주관적인 기억과 태도로 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고유의 독립성을 가진 공간과 물상사이에서 기점으로 매순간 영향을 주고받는다. 본인은 그 상호작용을 불교에서 말하는 색(色)과 명(名)으로 정의되는 육체와 정신의 복합적인 자아와의 소통이라 보았다. 그에 따른 공간과 자아의 만남을 표현한다. 이에 본인은 공간의 형태적 삭제와 변형을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일상과는 다른 색을 사용한다.

본 논고에서는 자아와 일상적이고 객관적인 공간을 본인의 주관으로 표현한 ‘찰나의 자리’ 전의 그림을 동양적 해석을 뒷받침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내용적인 연구 .....3

1. 공간과 장소의 의미 .....3

1) 물상과 물리적 공간 .....5

2) 기억과 공간 .....7

2. 경계 .....8

3. 일상적 공간과 자아의 표현 .....10

III. 작품 분석 .....16

IV. 결론 .....38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 1 】 이름 없는 성북2동, 162.2X130.3cm, 2011 .....	19
【 작품 2 】 보람맨션, 장지에 분채, 90.9X72.7cm, 2010 .....	21
【 작품 3 】 사간동16, 장지에 분채, 90.9X72.7cm, 2010 .....	22
【 작품 4 】 쌍문3동, 장지에 분채, 90.9X72.7cm, 2011 .....	23
【 작품 5 】 도봉로 608, 장지에 분채, 90.9X72.7cm, 2010 .....	24
【 작품 6 】 다락, 장지에 분채, 130.3X193.9cm, 2011 .....	28
【 작품 7 】 창5동 224-20, 장지에 분채, 112.1X145.5cm, 2010 .....	30
【 작품 8 】 가인지하차도, 장지에 분채, 각 162.2X130.3cm, 2011 .....	31
【 작품 9 】 북촌로45 I, 장지에 분채, 193.9X130.3cm, 2011 .....	34
【 작품 10】 북촌로45 II, 장지에 분채, 193.9X130.3cm, 2011 .....	35

# I. 서론

인간은 공간 속 사물과 존재 사이에서 삶을 살아간다. 아침에 눈을 떠서 움직이는 위치, 이동하는 거리, 시각으로 확인되는 현상과 밤에 잠드는 자리까지 일정한 역영에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의도나 동기가 없으면 주변의 공간을 보고 관찰하는 일이 드물다. 일상에서 공간과 장소를 의식하더라도 공간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을 인식한다.

그림을 그리는 소재에서 공간은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에 서양에서는 종교화 이후 정물이나 인물화로 실내의 공간에서 주로 그렸으나 인상파 화가들은 재료의 발전으로 밖으로 나가 풍경 등의 공간을 그리는 것이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신석기 또는 청동기 시대로 추정되는 암각화에서 감상이 아닌 짐승을 잡기 위한 주술로써 그려진 그림에서부터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에 이르기까지 실재하는 장소를 보고 그리되 똑같이 그리는 것만이 아닌 내재된 본질, 자연의 순환 이치를 파악해서 그렸다. 공간을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내적인 부분까지 관찰하여 그림으로 그렸던 것이다.

본인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공간과 문이나 계단 등의 경계사물에 주목하게 된 사실과 그 부분을 본인의 작업에까지 가져오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본인이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공간과 장소의 특정성, 그리고 이유를 알아보고자한다. 이 논고에서는 공간의 내용적인 측면을 다루고 본인의 자아가 어떤 형태로 공간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물리적 요소와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

어져있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공간을 형성하는 물상으로서 자리하는 경계의 일반적인 의미와 동양문화에 접근하여 해석하여 보고자한다. 셋째, 일상적 공간과 자아가 그 공간이 존재하는데 있어서의 모습을 알아보고, 공간과 자아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지향하는 정신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본인은 공간에 대한 연구와 스스로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자아를 통해 그 결과물의 작업으로 표현하고 만들어지는 모습을 나열하고 과정에 대한 모습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Ⅱ. 내용적인 연구

### 1. 공간과 장소의 의미

우리는 공간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느 특정한 장소를 지정된 명칭으로 인지하고, 발을 딛고 살아가며 의식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공간 속에 존재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 각자의 방이 있고 그 방에도 장롱 속 좁은 공간, 수납공간, 창밖으로 시선을 던질 수 있는 공간 등이 있다. 그 시선을 따라 움직이면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자동차가 건너가는 큰 다리 밑 공터, 강 옆으로 만들어진 주민들의 문화체육 시설들이 즐비한 공간, 학교의 운동장, 교실이나 도서관의 로비, 도서관의 책 한권이 빠진 사이의 공간 등 굳이 따지자면 우리 바로 옆에서부터 가보지 않은 장소까지 공간이 포함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일상에서 인간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공간의 문제가 과거에는 인간 현존재의 시간적 구성틀 문제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다. 1930년대 초, 심리학과 정신병리학에서는 같은 시기에 진행된 시간 연구와 긴밀히 연관 지어 이 문제를 수용했으며, 특히 하이데거<sup>1)</sup>의 철학에 자극받아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공간에 대한 연구와 발전이 계속되었으나 인간의 가장 내밀한 중심과 관련되는 시간과 달리 공간은 인간의 외적 생활환경만을 구성한다고 여겨졌다. 한편, 카시러<sup>2)</sup>는 <상징의 철학>이라는

---

1)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9~1976) 실존주의 철학자로 주요 저서는 《존재와 시간》이다.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 부분에서 불안, 무(無), 죽음, 양심등 실존에 관계되는 여러 양태가 매우 조직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술하여 실존사상의 대표자로 간주되었다. 현존재와 실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많은 이들에게 연구의 자극과 토대가 되었다.

2) 카시러 (Ernst Cassirer, 1874~1945)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비판적 관념론을 단순히 합리적 지식에 한정시키지 않았으며, 더욱 넓게 인간의 정신적인 경험이자 문화적 생산

대작으로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기원에서 출발해 근대의 과학적 의식으로 완성되기까지 인간 사고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며 필연적으로 공간관과 시간관의 발전도 연구했다. 인간 정신의 발전에서 볼 때 신화적 공간은 현대의 과학적 공간 개념에 의해 극복된 과거의 상태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 주제가 지향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후 망명을 떠남으로써 그의 책은 독일에서 거의 잊혀져 훗날의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후 그의 이론을 계승해 연구하는 이도 있었으나 그의 연구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근래에야 체험공간의 문제는 다시 연구의 전면에 등장했다. <상황>이라는 연감과 다른 한편에서는 바슐라르<sup>3)</sup>가 <4원소>에 관한 독창적인 책을 여러 권 펴낸 뒤 <공간의 시학>이라는 체계적인 연구를 발전시켰다. 이로써 무엇이 우위에 있는지는 논할 필요 없지만 공간은 이제 독자적인 비중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간성의 문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sup>4)</sup>

공간이라는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아무것도 없는 빈 곳. 둘째,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셋째, 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말이다. 위에 나열한 사전적 의미는 공간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특정 범위를 충분히 포함하고도 더 포괄적인 장소나 심리적 범위까지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광범위한 의미는 공간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장소나 물리적인 범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공존하는 관계임을 말한다.

---

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문화의 비판'으로서의 철학을 정립하려 했다.

3)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 1884~1962), 프랑스 철학자. 구조주의(構造主義)와 시론(詩論)과 이미지론(論)으로 유명하며, 관련된 대표작으로는 『공간의 시학』이라는 책이 있다.

4)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이기숙 옮김, 에코리브로, 2011, 12-14쪽

## 1) 물상과 물리적 공간

공간은 사물을 전제로 성립한다. 나무와 나무의 사이, 건물과 건물의 사이, 또는 이곳과 저곳의 사이로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사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존재자를 포함한 상대적 존재를 전제로 하고서야만 공간은 설명할 수가 있다. 벽과 벽이 있어 그 사이로서 공간을 말할 수 있으며, 학교의 운동장이라는 공간도 건물과 담장이 있어 그 사이여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사이는 존재자와 존재자의 사이를 말함이니 그 존재자란 다름 아닌 물상(사물)을 포함한다. 공간의 간(間)이 그 의미를 더 확실히 뒷받침해주는데 간은 사이라는 말이자, 사이는 물상에서 가능한 것이다.<sup>5)</sup> 공간마저도 무(無)라는 자체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니, 물상과 그것들의 사이를 통해서 존재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동양철학에서 ‘공간은 있는 것이 아니요, 있는 것은 오직 물상일 뿐이다. 방을 공간이 있어 방이라고 하나 있는 것은 오직 방이 있을 뿐이요 공간은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릇을 공간이 있어 물건을 담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나 있는 것은 그릇이 있을 뿐이요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sup>6)</sup>라고 한다. 이 말은 곧 물상의 존재와 그것들을 경계로 하여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물상을 통한 사이 없이 공간만이 존재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시 공간은 존재자가 인식하는 물상과 함께 의식의 현상으로서 볼 수 있다. 공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교육에 의해 배우고 실제로 측량 가능한 3차원의 수학적 공간을 떠올리는 것은 특정한 일면일 뿐이다. 미터나 센치미터로는 인간이 직접 경험하고 부분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과

---

5) 송향룡,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53쪽

6) 같은 책 53쪽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디론가 이동시에 자동차나 기차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밖의 공간을 스쳐지나갈 때에 창밖에 보였던 거리나 풍경들은 내가 돌아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존재한다. 그리고 지나쳐 버린 창밖을 다시 보려고 해도 이미 그 당시의 모습은 볼 수 없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고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 자리,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은 본인의 기억에 남아있다. 공간을 바로 앞에서 마주하거나 지나친 과거의 특정 장소 모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은 다각적인 면으로 공간이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공간이자 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생명이라는 존재는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별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위와 아래는 변함이 없지만 앞과 뒤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움직이는 시시각각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위치가 물상과 물상의 사이에서 스스로를 기점으로 잡을 수 있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방대함 속에서 과거의 특정 시기나 한 장소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없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금과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 공간이 어느 장소에 있던지 앞과 뒤, 좌, 우를 기준으로 어디에나 갈 수 있는 기점이다. 공간은 일정하게 고정되어있고 공간 속에서 인간은 기점이 되어 몸을 움직인다. 다시 말해, 공간과 존재자가 관계를 맺고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통해 확인되지만 공간은 나의 현재 위치와 무관한 고유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sup>7)</sup> 따라서 시간은 나를 기점으로 오늘을 살고, 지금을 보낸다. 공간은 나를 기점으로 상호작용하고 확인할 수 있고, 공간을 이루는 물질적인 경계 요소와 사물들을 특정 장소의 고유성을 가진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장소의 고유한 형태는 유지하되 스스로 이동하며 느껴지는 점을 관찰하고 장면을 선정한다.

---

7) 송항룡,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57쪽

## 2) 기억과 공간

공간을 존재자이자 물상, 기점으로 서로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했다면 그로 인한 기억과 개인이 가지는 그 장소의 특정성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을 통해서 작가의 개인의 삶에 따라서 각자의 자아와 상상력이 독자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시적 교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작가의 시를 읽는 독자가 공감할 때에 살아가는 환경이나 지식의 차이를 포함해 상상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보편적인 감성이 있는 것이다. 그 상상력의 보편성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한계 없이 자유롭다. 인간은 누구하나 예외 없이 이 세상 속 공간에서 존재하며 보편성을 가지고, 공간도 존재를 서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누구하나 벗어나있지 않고 공간과 함께하고 있다. 인지하거나, 혹은 의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 누구하나 빠짐없이 공간 자체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우주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가늠조차 어려운 크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잠깐의 시간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세상이다. 그 와중에 건물을 세우고 벽을 만들며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에 또 다른 공간들을 만들어 살고 있다. 공간은 물상을 통해서 또 다른 공간으로 나뉘고 그것을 존재자가 마주하며 형태에서 의미나 서로 존재의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정 공간에 어떤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가 있고 낯선, 혹은 꺼리는 장소가 있다. 그건 각각의 공간과 그 장소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억과 심리적 모습,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다른 장소, 개인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자리와 꺼리는 자리가 생긴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공간은 적어도 그 시간, 각자에게는 독립적이다. 그리고 체류하면서 그 공

간은 각자의 의미와 감정으로 채워진다.<sup>8)</sup> 인상의 깊이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장소에서의 기억이나 추억을 떠올리면 주관적인 형태로 변형된 각자의 공간이 존재한다. 그 기억은 사람에 따라 흐려지기도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지나다니던 익숙한 길도 낯선 느낌으로 다른 모습을 취한다. 그만큼 공간은 물질적으로는 하나의 모습이지만 존재자 사이의 기억과 감정은 개인의 체험과 관찰에 따라 다르면서도 일정한 보편성을 가진다.

## 2. 경계

본인은 일상에서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시각으로 들어오는 공간, 장소의 모습 중에서 경계 사물에 의한 시각적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 종이에 선을 긋는 것부터 화면 안에서의 경계가 만들어지고 면을 칠하는 것도 화면을 분할한다. 2차원의 화면에 현실의 객관적인 공간과 물상을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옮긴다. 본인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계의 의미 외에도 동양에서의 의미, 그리고 위에 거론되었던 보편성과 동반되는 개인의 독자성으로 공간을 본다.

경계의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그리고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경계는 외부와 내부를 나누고 바깥으로 정해진 사물을 기준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계는 외부와 내부를 나누고 바깥으로 정해진 사물을 기준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안과 밖은 인간에게 다른 감정과 활동의 차이를 준다. 변화의 잣대가 되는 공간과 장소의 구분이 안정감과 방어에 대한 본능을

---

8)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이기숙 옮김, 에코리브로, 2011, 87쪽

가지게 한다. 경험을 통해 장소와 환경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감정을 느낀다. 안과 밖을 나누고 연결하는 문은 수용과 거부를 함께 가지고 있다. 외부인이 드나드는 것을 막거나 주인이 손님을 환영하기도 한다. 옛 성문이나 성곽들은 단절과 방어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경계의 단절과 방어적인 면보다는 연결과 소통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담양 소쇄원에는 계곡물이 흐르는 오곡문이 있다. 경주의 동락당의 살창문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창살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랑채의 측면으로 문을 열고 앉아 있으면 살창문을 통해서 계곡물이 흐르고 동물들이 드나들고 그 계절의 나무를 볼 수 있다. 담벼락이 있어도 될 자리에 살창문은 사람의 육체가 드나들 수 없다. 대신 시선이 넘나들고, 자연과 바깥세상이 드나드는 문인 것이다. 본인은 우리 조상들의 옛 건축을 보면서 경계 사물들이 닫혀있는 상태라도 연결과 수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느낀다.

경계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동양으로 보고 공통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불교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불교에서는 눈·귀·코·혀·촉각의 감각기관인 오근(五根)으로 색·소리·냄새·맛·촉감을 감각하는 오경(五境)이 감각기관과 사과의 작용으로 인식된 세계나 사물을 의미하는 ‘현상’이 경계라고 할 수 있다. 바로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고, 신체라는 이 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이 느끼는 것에 경험을 통하고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의식, 혹은 정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더해져서 이 경계를 설명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오근(五根)에 의식(意)을 더하여 육근(六根), 의식에 대응하는 것을 법이라 하며, 오경(五境)에 더하여 육경(六境)이라 한다.<sup>9)</sup> 불교에서는 위의 인식에 대해서 나(六根)와 외물이 함께 구성하는 특별한 점을 육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위에서 이야

9) 이상우 지음, 동양미학론, 시공아트, 2009, 39쪽

기했던 공간의 존재를 확인하는 상호간의 존재와 인식이 경계로서 표면적인 의미 외에 나와 사물이 함께 구성하는 일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경계 역시 공간속에서 존재자들이 서로를 통해서 인식하고 존재 자체를 확인하며 공존한다. 몸이나 사물로서의 경계를 가지고 함께 인식하면서 공간속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 구성은 내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시각적으로 변형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로 느껴지는 감각과 사고 작용이 외물을 보는데 밤과 낮의 환경이나 빛과 사건을 통해서 변형되는 것이다. 그것은 시각적 요소와 심적 요소를 동반해 작용한다.

경계사물에 집중하면서 나는 나와 물상 사이의 빈곳. 그 공간에서 일순간 느껴지는 기운과 에너지,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 사진이나 글, 드로잉 등의 기록으로 남긴다. 그 순간의 짧은 찰나에 바로 그 자리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듯 느껴지는 그 공간과 물상의 경계는 시각으로만 확보할 수 있지는 않다. 나라는 본연의 모습, 날씨에 의한 빛의 차이, 바람 등 그 순간에 만난 요소들의 모임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이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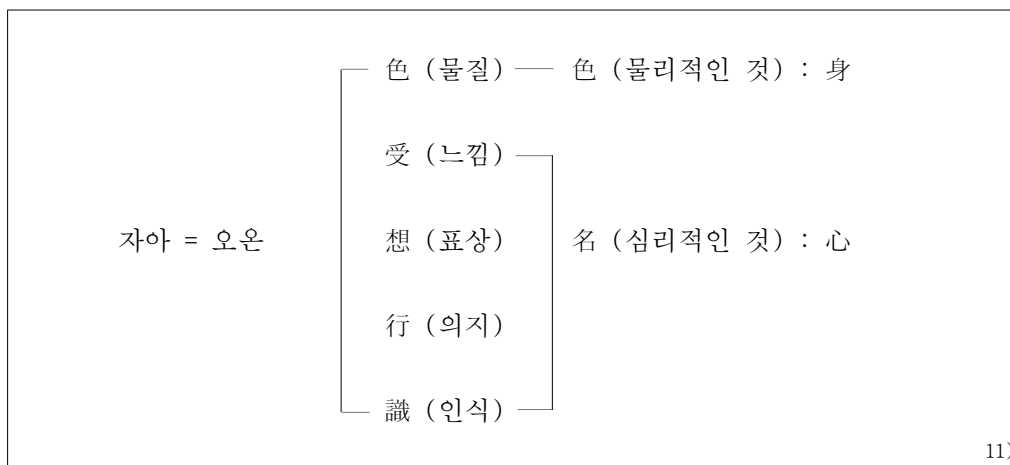
### 3. 일상적 공간과 자아의 표현

최근에 우리의 삶은 서양에서 들어온 생활방식과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서구식 건물과 옷, 음식들까지도 깊숙이 침투해있다. 그리고 우리 문화와 정서는 내면에 더 깊이 자리하고 있다. 서구의 생활 방식과 우리 민족의 정서는 자연스럽게 결합되었다. 서양에서는 숨씨, 기술인 공예부터 종교화로 시작되어 예술이 되고, 동양에서는 시·서·화로 선비와 정신으로 자리하던 결과물들은 긴 여정을 거쳐 현시대에 서양문물

과 뒤섞여 지금 시대에 어우러진 시각예술, 미술이 되었다. 본인의 그림은 외적요소에서 볼 때 동서양의 문화를 함께 체험한 시대의 특성과 자아의 결합을 통해서 표현된다. 특히 일상의 현실 속에서 본인이 존재하는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장소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항상 곁에 존재한다. 물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음으로 또 다른 공간이 있고 그 사이를 존재자들이 본인을 기점으로 움직인다. 게다가 현재의 사람들은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으로 거리와 범위를 움직이는 속도까지 조절 하게 되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자리하는 매우 광범위한 공간은 존재자에게 더욱 주관적이고 사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공간과 존재자는 서로를 통해서 존재하고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낮음을 가릴 수 없다. 그렇다면 공간자체의 물상과 물상의 사이, 그리고 크기는 그 사이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지구, 그리고 우주 속에 존재하는 지구라는 별, 그 위에 중력의 힘으로 발붙이고 사는 우리의 자아는 무엇인가? 공간은 존재자의 주관적인 기억에 의해서 존재가 확인되고 존재자 역시 그 기억을 가지고 실재 공간에 존재한다. 이 기억을 매개해서 공간과 존재자는 서로 연결되는데 이 주관적인 기억을 하는 존재자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언제나 이 질문으로 자아를 찾는 과정은 시작한다.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색과 명으로 칭하는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것을 색(色, rupa), 그 색과 연관된 비가시적인 심리적인 것들을 명(名, nama)라고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자아에 관해 나의 몸은 색(色)이고 수(受)·상(想)·행(行)·식(識) 으로 네 가지의 심리적인 명(名)이 있다. 이것을 오온(五蘊) 화합물이라고 보고 인간이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와 다른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자아에 집착하는 아집(我執)을 무너뜨리고자 하여 무아無我론을 주장한다. 오온(五蘊)을 자아로 인정할 경우, 그 자아에의 집착이 더 커질 것이며, 그 집착으로부

터 오는 고통의 해방을 추구<sup>10)</sup>하는 이유에서 무상(無常), 고(苦), 공(空)을 강조하며 무아를 깨닫는 길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오온이 자아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 그에 집착하여 아집에 빠지지 않는 그 자체 상태를 자아의 모습으로 보고 본 논고에서 사용하겠다.



위와 같이 자아란 물질적인 육신과 그 내면에 정신적인 부분으로 나라는 인간을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로 볼 수 있다. 첫째, 색(色)이란 빛과 모양을 가진 물질을 의미하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육체를 가리킨다. 둘째, 수(受)란 우리의 주관적, 내적인 감각기관인 육근과 상응하는 외적 대상인 육경이 만나서 생기는 감정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촉각을 느끼고, 뜻으로 생각이 만들어지는 긍정적, 부정적, 긍정도 부정도 아닌 세 가지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셋째, 상(想)은 대상을 식별하고, 대상들에 이름을 부여하는 개념, 또는 표상이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불리는 일반적인 이름 등으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실제로 항상 변하고 있는 것이

10) 한자경 지음, 불교의 무아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20쪽  
 11) 같은 책, 2010, 18쪽

다. 넷째, 행(行)이란 형성하는 힘으로 특히 여기서는 인간의 의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넓게는 수, 상, 식을 제외한 모든 정신 작용을 총괄하는데 기억이나 상상, 추리 등의 정신작용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식(識)은 분별, 인식 및 그 작용을 말하는데 상이 직접 대상을 판단하고 인식하기 이전 단계까지 인식하는 것이다.<sup>12)</sup> 예를 들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길을 걷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눈앞에 ‘번쩍’ 정신을 차리는 게 ‘식’이며,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확인하고 벽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상’ 이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느낌이 ‘수’ 의 작용이고, 벽에 화풀이를 한다거나 다치거나 망가진 것이 없는지 찾는 행위 등이 바로 ‘행’ 인 것이다.

내가 몸을 움직이고, 인식하고, 선택하며, 느끼는 감정들이 바로 자아이다. 그리고 우주 속 지구라는 별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아의 체험인 것이다. 매일 지나다니는 집 앞, 골목길과 버스나 지하철, 하루에도 수 없이 열고 닫으며 지나가는 갖가지의 문 등 일상에서 아주 가까운 부분들은 내 자아와 만나고 경험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물상이자 공간이다. 자연스럽게 본인의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주관적으로 기억하거나, 우리 주변에서 매일 스쳐 지나갔던 일상의 공간이자 장소들이다. 내 자아와 일상에서의 공간, 그리고 경계사물 사이에 환경과 날씨, 주변의 상황, 그 순간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특정 요소들에 의해 매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삶속의 한 장면들이 끊임없이 지나가는데 존재자로서의 공간이동과 시간의 흐름 사이에 걸리는 순간을 그린다. 이런 장면들은 일상에서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마주하는 사이에 자아가 특별한 느낌을 느끼는 순간이다. 일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삶의 깊은 부분 쌓여있는 공간들을 특정 단어나, 자아를 이루는 상(想)으로 표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려지는 장소들은 실제로 본

---

12) 법상 지음,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도서출판 무한, 2011년, 146-156쪽

인의 집 주변, 혹은 장기적으로 수차례 이동하며 마주치고, 곁에 존재했던 장소들이다. 이 공간 속 장소들을 그리는 것은 내 삶속에서의 체험과 수(受)를 통해서 인식된 ‘현상’의 경계가 나를 통해 그림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예전에 장자는 나비가 된 꿈을 꾸 적이 있다. 그때 그는 즐겁게 날아다니는 한 마리 나비였다. 아주 즐거울 뿐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조금도 없었으며, 자신이 장자임을 자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꿈에서 깬 순간 분명히 장자가 되어 있었다. 장자가 나비가 된 꿈을 꾸 것인지,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장자와 나비는 확실히 다른 것인데, 이를 물화라고 한다.<sup>13)</sup>

「昔者莊周夢爲胡蝶，栩栩然胡蝶也，自喻適志與，不知周也。俄然覺，則蘧蘧然周也。不知周之夢爲胡蝶與，胡蝶之夢爲周與。周與胡蝶，則必有分矣。此之謂物化。」

莊子 · 齊物論

역대로 이 나비의 꿈 이야기로 알 수 있는 것은 물화란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다. 분명 장자와 나비는 다른 존재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드는 것이다. 쉽게 우리에게 접해보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국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랜 학습과 생활에서 체득하여 사람이 숨을 쉬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어려움 없이 유창하게 말하게 된다. 이것은 유전이나 조상에 상관없이 당사자가 존재하는 환경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것인데 그 결과 언어는 본인들에게 속해 있는

---

13) 이상우 지음, 동양미학론, 시공아트, 2009년, 74쪽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도 그 말 자체를 인식이나 감각의 대상으로 여  
기지 않는 것이다. 모든 공간이 본인에게 숨을 쉬고 말하는 것처럼 인식하  
지 않아도 본연의 모습으로 느껴지기는 어렵다. 짧지만 잠깐이라도 그것에  
근접한 느낌을 주고 일상에서 혼하지만 혼자 한 가운데 서있는 듯 빠져드  
는 느낌을 받는 공간에 매력을 느끼고 본인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된다. 물  
론 현재 공간을 물화의 상태에서 작업으로 끌어내는 것으로 보기에 완전하  
지 않지만 작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면이 있고 앞으로도 지  
향하며 추구하는 자세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 Ⅲ. 작품분석

예술은 장르와 수준을 불문하고 인간의 생활에 뒤섞여 의식하지 않을 때에도 함께 한다. 대표적으로 회화, 조각, 건축, 음악, 무용, 시, 소설이나 영화 등이 있지만 이 외에도 큰 건물 앞에 조각상, 학교나 공원의 조경, 걸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향기기의 디자인,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재즈음악, 이젠 굳이 특정 공연장이 아닌 야외무대, 공원, 지하철까지 넘나드는 거리공연이 그 예이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자신의 예술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동시대의 사람들 속에서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표출을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그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일상에서 만나는 공간들 속에 매일 마주하다가도 일순간 튀어 올라오는 경계사물에 시선을 주목하는 순간이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순간들은 그 누구와도 무관한 고유의 독립성을 가지는 동시에 나를 기점으로 매순간 달라지는 구도 중에 한 장면이자 나와 그 물질적 사물 사이 공간의 에너지, 혹은 기운이 맞는 찰나이다. 거기에 덧붙여 매일 지나던 익숙한 장소에서의 낯선 느낌이나 낯선 장소에서의 친숙함은 그 공간과 나 사이의 존재 확인이자 매개인 기억에 의해 느껴지는 경향이 크다. 익숙했던 공간에서의 매일 같은 기억은 순간적으로 집어내지 못하는 요소로 낯선 느낌을 감지하고, 처음 가는 장소인 것 같지만 언젠가 한번은 본 듯한 어렴풋한 기억이 그 영향이 있다. 그렇게 기억과 함께 경계 사물을 마주하며 그 자체로 단절되고 나누어 열고, 닫는 사물이 아닌 넘나들 수 있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물로 느낀다. 신체가 문을 열고 드나드는 것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안과 밖이나 이곳과 저곳이 연결

역할이다. 창문이나 철창을 통해 시선이 넘나들 수 있는 한계점으로써의 경계가 아닌 나와 사물이 서로를 통해서 존재를 알고 나의 감각 기관과 사고를 통해서 인식되는 현상이다.

공간과 자아가 만나는 것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체득된 것이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잠깐의 찰나에 그 자리에 서서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느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의 수단으로 사진이나 드로잉과 함께 글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후 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 기록을 통해 큰 화면으로 옮기기 전의 드로잉 과정을 한번을 더 거친다. 이때에는 실제와는 다른 변형을 감행하는데 색감과 형태의 단순화가 기본적이다. 이 과정은 어쩔 수없이 공간과 자아의 만남 이후에 작업을 하면서 재구성을 한다. 그리고 나는 작업으로 다시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과 내 자아, 그리고 기억속의 주관적인 공간에 의존해 시각적인 표현을 변형시키는데 최대한 그때의 느낌이나 감정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동양화는 정신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사람의 지각 체험의 현실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그 과정에서 실제 공간의 모습이 단순화 되는 건 오랫동안 색을 쌓아 올려야 하는 방법으로 채색을 하는 시간동안 특정 공간과 장소의 사진 같은 표현이나 묘사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리는 동안에도 실제 장소에 느낌을 어렴풋하게라도 붙잡고 있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재료는 3합에서 5합 장지를 사용하고 바탕색을 올릴 때부터 진채를 염두하고 칠한다. 색은 두껍게 올라가고 진하게 표현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색을 수없이 많이 올려야하는데 색을 올리는 시간과 과정에서 그때의 공간과 마주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

---

14) 김우창 지음, 풍경과 마음, 생각의 나무, 2008년, 19쪽

것을 선택하자면 나는 시각예술로 표현하고, 일상의 공간에서 경계사물을 마주한 자아가 그것마저도 상일뿐, 형태를 보존하고 유지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무엇을 그렸는지는 알 수 있지만 과감한 단순화와 경우에 따른 변형으로 묘사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나로서 그리는데 주력했다.



【작품 1】 이름없는 성북2동, 162.2 X 130.3cm, 2011

## [작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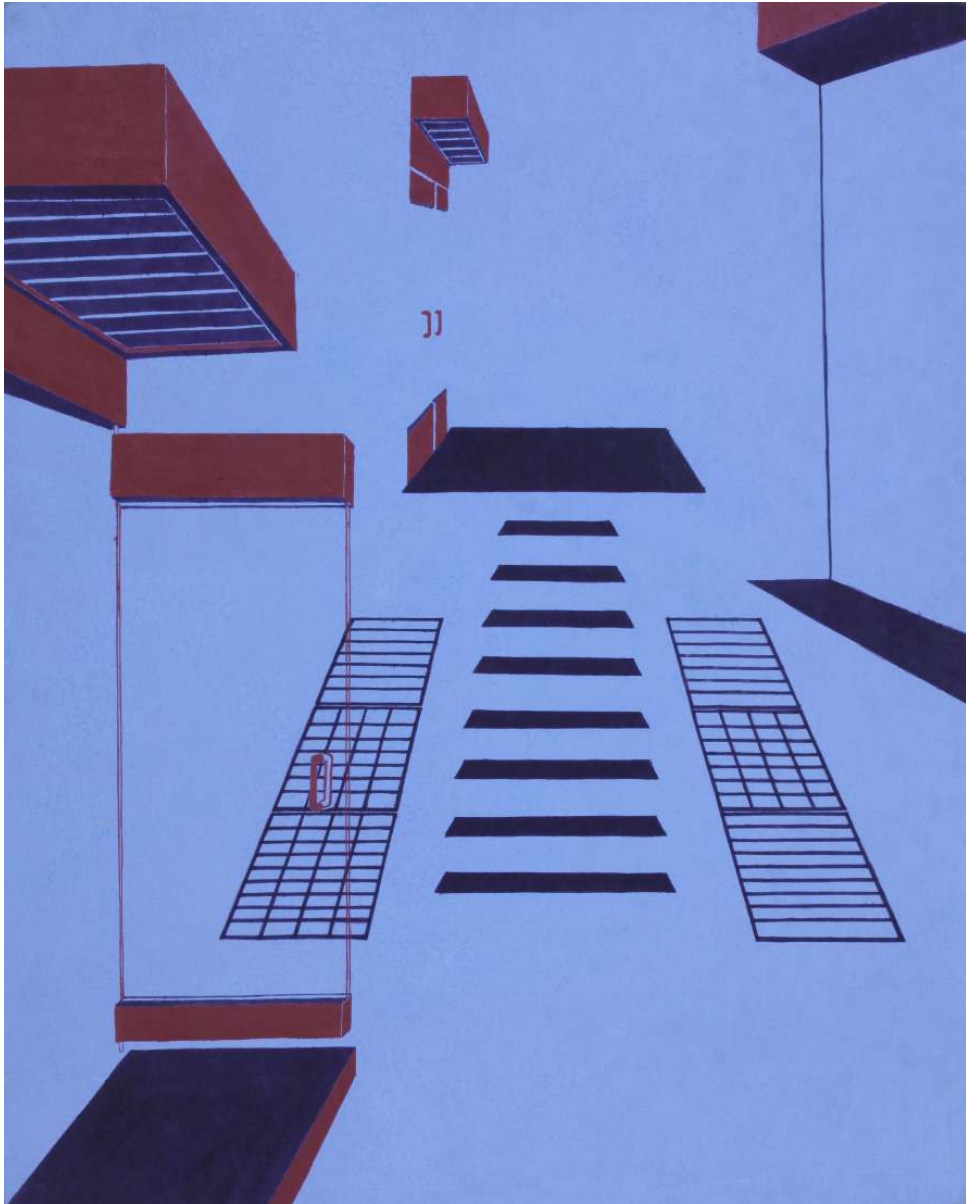
제목: 이름없는 성북2동

재료: 장지에 분채

크기: 162.2cm x 130.3cm

성북동에 갈 때마다 지나치던 길이 있었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 미술관에 갈 때, 근처에 잘 꾸며진 카페나 아는 사람만 아는 식당에 갈 때에 알게 모르게 지나쳤던 곳이었다. 하루는 매년 봄 가을에 하는 전시를 보러 가는 길이였다. 인도위로 꽤 많이 올라와 있던 승용차와 경찰들이 이성적인 모습으로 무언가를 적고 이야기하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차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서리에 있는 건물의 끝에 문 대신에 달린 셔터와 부딪혀 교묘하게 섞은 카드를 좁게 깔아놓은 듯이 보였다. 완전히 무참하게 부서진 것도 아니고 살짝 굽힌 것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이었다. 뭐하는 곳인가 하고 보니 간판에는 글씨하나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군데군데에 겨우 붙어있던 시트지가 조금씩 남아있었다. 구겨진 셔터 틈 사이로는 철재들이 조금씩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이곳이 가게인지, 창고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었다.

외부의 물질적 충격으로 생긴 형태의 변형은 내게 낯선 느낌으로 다가와 한 낮이었지만 밤에 홀로 있는 듯 쓸쓸한 느낌을 주었고 나는 그 외적 형태와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다.



【작품 2】 보람맨션, 장지에 분채, 90.9 X 72.7cm, 2010



【작품 3】 사간동16, 장지에 분채, 90.9 X 72.7cm, 2010



【 작품 4】 쌍문3동, 장지에 분채, 90.9 X 72.7cm, 2011



【작품 5】 도봉로608, 장지에 분채, 90.9 X 72.7cm, 2010

[작품 2]

제목: 보람맨션

재료: 장지에 분채

크기: 90.9cm x 72.7cm

[작품 3]

제목: 사간동 16

재료: 장지에 분채

크기: 90.9cm x 72.7cm

[작품 4]

제목: 쌍문3동

재료: 장지에 분채

크기: 90.9cm x 72.7cm

[작품 5]

제목: 도봉로 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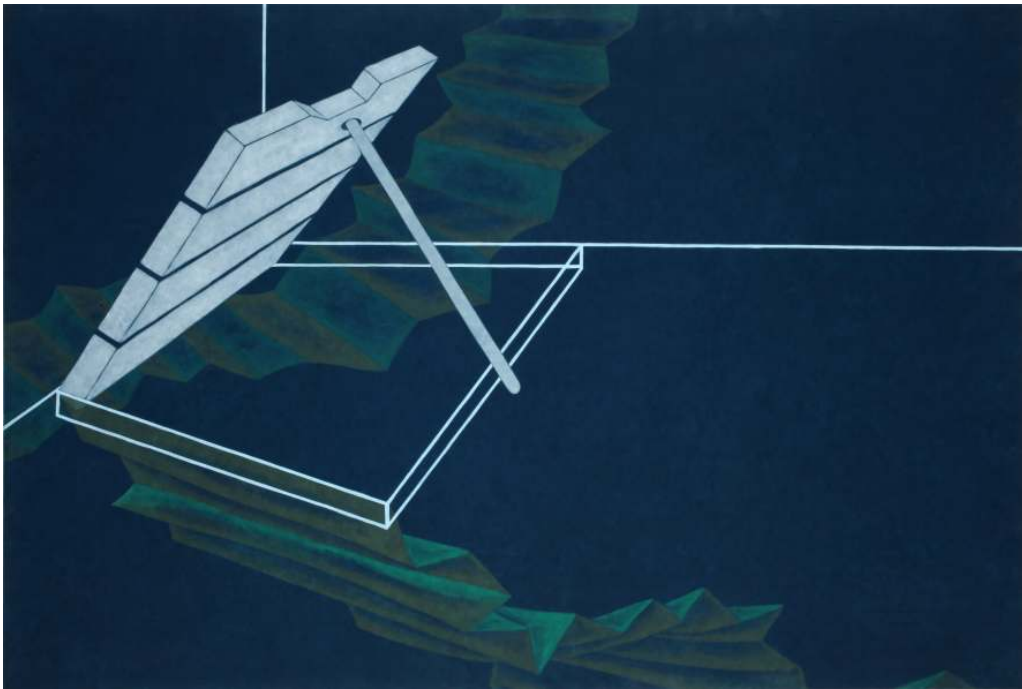
재료: 장지에 분채

크기: 90.9cm x 72.7cm

실제의 장소를 되도록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단순화 시켰다. 원근감은 있지만 평면적으로 보이는 이 그림들을 통해서 공간의 사물들은 하나의 형태일 뿐 공간과 장소를 나누고 단절시키는 역할이 아니다. 설령 문이 닫혀 있더라도 시선으로 통과 할 수 있고 막혀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실제로는 닫혀있는 문이더라도 벽에 그 문과 ‘열린다’는 가능성은 안과 밖의 연결이고, 하나로 통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이다. 특히 [작품 2]은 문과 상하 이동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계단을 표시하듯이 그렸다. 실제 빌라의 지면 기울기가 달라서한 건물의 출입구는 두 군데로 나뉘어있었다. 높이가 달라서 출입구가 높은 한쪽은 반지하층이 없었다. 이 [작품 2]를 그릴 당시에는 이 장소에 일주일에 한번씩은 1년 가까이 드나들어야했던 장소였다. 처음에는 특이한 구조의 공간에 낯선 느낌도 있었지만 계단을 올라 건물로 들어갈 때에는 다른 차원으로 안정감으로 감싸여 가는 듯 약하게 이 끌리는 당겨짐을 느꼈다. 계단 양 옆으로는 주변의 주차공간의 부족함 때문인지 자동차나 자전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물이 빠지는 철재

로 바닥에 깔려있어 계단과는 다른 길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구조가 계단을 오르는 양 옆은 사람이 걸지 않는 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나도 이 장소를 지날 때마다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조이기도 했고, 그 구조의 요소들이 순간적으로는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주기도 했다. 그 순간들의 느낌들을 되살려 벽이나 바닥없이 경계와 오르는 계단만을 그려 그림으로 표현했다. [작품 2], [작품 3], [작품 4], [작품 5] 역시 원근감은 있지만 낱장의 색종이를 잘라 올려놓은 듯 단순하게 묘사하되 공간의 입체적인 공간감보다는 납작하고 평면적인 느낌이 들게 했다. 안, 혹은 밖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경계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본인의 의도는 투과된 경계사물 너머에 다른 것이 아닌 바탕과 같은 색으로 다르지 않은 공간이자 하나의 공간임을 의도한 것이다. 특히 [작품 3]는 전시를 보러 다니는 장소였는데 실존하던 담을 일부분을 삭제했다. 점점 좁혀져 시선이 가운데로 몰리고 답답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화면 안에서 시선이 흐르듯 움직이는 것을 의도했다. 실제 모습을 단순화 이상으로 삭제함으로 바탕색의 비율을 넓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전거’라는 이동 수단의 형태이자 상이 들어감으로써 담의 유무에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정신으로 가능한 이동의 가능성과 서로가 다른 곳이 아님을 표현하려 의도했다. 쓰러진 자전거는 이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쓰러진 상을 바로 세우는 행동으로 그 가능성의 사용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의 상징이다. 결국은 공간을 정신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쓰러진 자전거를 세우듯이 의도와 행동이 필요함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와 본인의 자아의 일이다. 이어서 말하자면 [작품 4]역시 [작품 3]과 같이 문과 계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그리지 않았다. 묘사는 평면적이지만 두 가지 이상의 분체를 중첩시켜 다른 그림의 단색 배경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그림의 실제 장소는 평소 작업실 근처의 건물로 자주 봐왔던 장소였다. 하루는 밤늦게 집에 가는 데 근처가 주택이라 시간이 늦어지면 사람도 없고 조용했었다. 어쩐 일인지 근처의 가로등도 꺼져서 깜깜했는데 이 번지수 모르는 건물 옆에서만 흐린 가로등이 켜져 건물의 문과 계단이 더욱 도드라지게 비추고 있었다. 깜깜한 밤에 계단과 문이 도드라져 보이니 주변이 우주인 것처럼 느껴졌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건물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나의 변화가 함께 영향을 받아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기억하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작품 5]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역시 밤에 공간을 비추는 조명에 의한 모습이다. 회색이나 무채색의 벽이나 도로, 바닥은 밤이 되면 햇빛이 아닌 인공조명의 색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낮에 비추는 태양의 빛은 각자 그대로가 가진 색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밤이 되면 간판이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가로등 빛에 의해서 원래의 색과 다른 색으로 보인다. [작품 5]는 주황빛의 가로등에 낮에 가졌던 일상의 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어둠속에 빛을 받아서였는지 집중되고 공간 너머서 무엇이 있을지 선뜻 밝은 떨어지지 않지만 멈추어서 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광노봉이 옮긴 ‘회화백문 백답’에 의하면 ‘색채는 본래 객관적이며 서로 다른 물상은 각기 서로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화면에서의 색채는 인위적으로 안배하면서 어떠한 색채를 사용하는가는 작가의 주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화면상의 색채는 어느 정도 사람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고하여 사물이 가지는 고유한 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화면으로 옮겨지는 색의 변화는 작가의 주관에 의해 가능하다고 한다. 본인은 1차적으로 주변 환경과 빛이라는 특정 요소에 의한 시각적 변화를 2차적으로는 본인이 그 장소에서 느낀 공간적 체험을 자아의 체험으로 재구성해 화면에 옮긴다. 이 변화는 공간과 자아가 함께 만날 때 그림으로 완성된다.



【작품 6】 다락, 장지에 분채, 130.3 X 193.9cm, 2011

## [작품 6]

제목: 다락

재료: 장지에 분채

크기: 130.3cm x 193.9cm

기억에 의해 존재하는 과거의 공간은 흐릿하지만 더 묘하고 아련한 이미지와 추억을 가지게 된다. 요즘에는 보기 힘들지만 어릴 적 시골에 조부모님 댁이나 친구가 사는 마당이 있는 옛날 주택에는 방 안에 간이계단을 올라 머리위로 다락문을 열어 올라가보곤 했다. 그 안에는 재밌는 장난감이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낮은 천장과 아늑하지만 사람이 지내지 않는 공간의 느낌이 있었다. 살짝 어두운 밝기와 낮은 천장, 좁은 공간은 멍하니 앉아있다 졸아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처럼 편안했다.

내 기억속의 다락은 계단을 올라 머리를 내밀면 바닥이 보이는 시선이 흔치않아서인지 더 인상 깊었다.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해 다락이라는 장소에 남아있는 느낌과 감정들을 드로잉 했다. 벽이나 바닥의 색과 형태는 그저 공간이라는 점에서 물상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선으로 최소한의 모습만 남겼다. 그보다 주된 기억으로 남는 것은 머리위로 들어 올렸던 무거운 다락문이었다. 그 다락문은 나무로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사용해서인지 손에 닿는 느낌도 좋았고, 바닥으로써의 역할도 하였기 때문에 든든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그런 느낌과 기억은 막연한 신뢰감이 가득했다. 문의 두께감과 지탱하는 막대는 흰색으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다. 바탕의 파란색위에 올라간 호분은 더 단단하고 믿음직한 느낌이 선명하게 든다. 그 문을 향해 올라가던 계단은 지금은 실제로 올라 갈 수 없는 계단 이기에 종이를 접어 만든 것처럼 묘사해 아련한 마음을 읊겼다. 이 기억에 존재하는 과거의 공간과 내 자아가 함께 만들어낸 다락의 모습이다.



【작품 7】 창5동 224-20, 장지에 분채, 112.1 X 145.5cm, 2010



【작품 8】 가인지하차도, 장지에 분채, 각 162.2 X 130.3cm, 2011

## [작품 7]

제목: 창5동 224-20

재료: 장지에 분채

크기: 112.1cm x 145.5cm

## [작품 8]

제목: 가인지하차도

재료: 장지에 분채

크기: 각 162.2cm x 130.3cm

[작품 7]과 [작품 8]은 본인의 집에 아주 가까운 초등학교와 지하차도이다. 목적지에 따라서 두 장소를 동시에 지나다녀야 했다. 장소의 실제 이름마저도 가인초등학교와 가인지하차도로 옆에 위치해있었다. 그래서 각자의 공간에 매력을 느끼는데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만, 각 장소의 느낌은 다르게 표현 했다. 먼저 [작품 7]을 보면 그 장소를 볼 때마다 가장 크게 다가왔던 물상은 열고 닫을 때에 따라 스프링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게 다른 정문의 자바라였다.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장면에서 자바라가 정문에 넓게 펼쳐져 잠겨있는 모습이였다. 일정한 직선으로 늘어서있는 형태가 잠겨있는 문이었지만 닫혀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50cm가량 넓은 틈 사이사이로 가로 선들도 있었지만 웬지 안의 학교 운동장이나 수업을 하는 교실의 창문이 시원하게 잘 보였다. 실제로는 잠겨있는 문이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관념적인 생각보다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에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학교나 운동장의 잔상은 남지 않고 자바라 자체의 연속적인 직선들의 잔상이 남아 머릿속에 맴돌았다. 시선을 통해 정신적인 출입이 가능한 장소로써 그림으로 옮길 때는 자

바라와 배경의 색부터 실제와는 전혀 다른 색으로 칠하고, 이미 자바라의 연속적인 형태가 나오기 때문이 그 외에는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그리는데 집중했다. 작은 배들을 그려 바탕에 공간들이 땅인지, 바다인지, 허공인지 모를 상상의 여지를 남겼다. 현실과는 다른 구성과 변형으로 자바라 자체 외에는 실제 현실에 있었던 물상은 그리지 않았다. 이점은 [ 작품 8 ]에서도 마찬가지다. 지하철도 이외의 다른 주변은 그리지 않고 지하철도를 이루는 형태를 그리고 그 내부의 무언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노란 색으로 표현했다. 지하철도는 긴 길 끝에 출입구를 빼놓고는 긴 통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갈 수 있는 길은 두 방향뿐으로 길게 늘어선 통로 끝에 출입구뿐이다. 사람도 자동차도 그 긴 통로 안으로 들어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인다. 특히 차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동차들이 내는 소리와 움직임의 속도, 그리고 헤드라이트의 빛이 비슷하면서도 자동차마다 다른 각자의 특색이 있었다. 그 출입구가 자동차들을 삼키고 뱉어내는 것 같았다. 그 모습에서 지하철도를 구성하는 외적 건축 사물만을 그림으로 옮겼다. 그 사물의 형태와 당시의 느낌에 가까운 바탕색으로 빨간색을 결정하고 물상 자체의 서늘하고 건조함과 내부의 조명, 알 수 없이 느껴지는 힘을 표현 했다.



【작품 9】 북촌로45 I , 장지에 분채, 193.9 X 130.3cm, 2011



【작품 10】 북촌로45 Ⅱ, 장지에 분채, 193.9 X 130.3cm, 2011

[작품 9]

제목: 북촌로45 I

재료: 장지에 분채

크기: 193.9cm x 130.3cm

[작품 10]

제목: 북촌로45 II

재료: 장지에 분채

크기: 193.9cm x 130.3cm

한 장소를 그리면서 보내는 시간과 장소는 내가 실제 그 자리에서 공간과 마주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그 장소와 마주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다. 색을 올리는 것도 그 당시의 느낌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함께 한다. 수잔 K. 랭거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술작품은 감각이라든가 상상력을 통해서 지각되도록 창작된 표현 형식이어서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인간 감정이다.’ 라고 했다. 이 인간의 감정도 오온 화합물의 수(受)에 해당하니 그 감정을 기억하고 그대로 전달하려고 온 신경을 쏟아 붓고 행동하는 것 모두가 자아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다.

[작품 9]와 [작품 10]은 같은 장소를 두 번 그린 작업이다. 이를 통해서 같은 장소에서의 다른 감정이나 전달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의 단순화와 색감의 변형에도 일반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보편성에 각자가 가지는 개인의 주관적 느낌도 하나씩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주관적인 만큼 시기와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느낌도 달라지고, 시간이 흐르

면 [ 작품 6 ]처럼 기억속에서서 당시 이후의 변화는 있지만 그것 역시도 자연스러운 흐름과 주관성의 결과이다. 우리는 모두가 객관적인 현실을 보고 보편성을 갖지만 사람마다의 자아와 환경적 경험의 차이로 주관적인 기억과 생각, 그리고 표현을 가진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나의 자아와 공간의 표현이다. 우리는 모두 공간속에 살아가고 있고 다른 이들 역시 나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느끼고 표현할 것이다.

## IV. 결 론

현대사회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접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많다. 길을 걸어 다니면 더 빠르고 자극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재촉하고 있다. 점점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구조와 서양문화 속에 전통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며 본인만의 특성을 만들어왔다. 이런 사회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정신없이 빠르고 바쁜 시대에 휩쓸려 함께 그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서 바라보고 진정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과 공간의 주체적인 사용으로 우리의 조상들처럼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는 것이다.

공간은 우리의 곁에서 많은 부분 함께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 특별히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스며들어 있다. 기점으로서의 존재자와 공간은 무수한 상호작용으로 존재를 확인하고 주관적인 기억을 저장한다. 자아는 우리의 육체로 볼 수 있는 색(色, rupa)과 명(名, nama)의 네 가지 수(受)·상(想)·행(行)·식(識)이 함께 이루어져 역시 내면적인 관심과 외부와의 만남에 집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공간과 마주할 때 자아와 제대로 함께 한다면 그 공간은 표면적으로 객관적이지만 주관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진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존재 요소들은 본인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형태와 색깔을 변형시켰다. 외부적인 환경 요소와 공간, 그리고 본인의 자아가 함께 결합된 영향은 그림의 형태적 단순화와 색의 변형으로 표출되었다. 그림 속 사물의 형태적 표현에는 과감한 가감으로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오랜 시간 만들어진 다.

문이나 철창 같은 경계사물들은 그 존재를 통해서 열고 닫음, 공간을 나

누는 의미를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연결의 가능성과 본래에는 통합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 몸으로 지나갈 수 없는 곳도 시선이나 정신은 언제든지 넘나들며 우주 속에 존재하는 존재자와 공간은 개인이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본인의 작업은 형태나 구도로만 보았을 땐 단순하지만 그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관계 후, 형태를 단순화 시켜 묘사나 표현보다는 그 순간의 내 자아가 그 공간에 빠져든 느낌을 표현하였다. 단순한 형태와 원색적인 채색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양문화에 잘 적응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재료의 사용 과정과 그림을 그리기 전의 자세는 전통적인 동양의 형태를 지키고 있다. 실제 모습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아와 결합된 본인을 표현을 하는 것이다.

본인은 시각으로 받아들인 장면과 본인의 느낌을 화면에 옮기기 전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거나 혹은, 받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란 언제나 부족함을 채우고 발전하기위에 노력한다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나와 외부의 만남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 본인의 내면과 행동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세 추구하고 지향하는 태도에서 앞으로도 작업은 계속 수정보완하며 진행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과학사상연구회, 『제3집 과학과 철학』, 통나무, 1992.
- 철학아카데미, 『공간과 도시의 의미들』, 소명출판, 2004.
- 이상우, 『동양미학론』, 시공아트, 2009.
- 김선화, 『미술의 이해』, 부경대학교출판부, 2003.
- 김우창, 『풍경과 마음』, 생각의 나무, 2008년.
- 법상,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도서출판 무한, 2011.
- 한자경, 『불교의 무아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 송향룡,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 한명식, 『예술을 읽는 9가지 시선』, 청아출판사, 2011.
-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광광수 옮김, 동문선, 2003.
- 수잔K.랭거, 『예술이란 무엇인가』, 박용숙 옮김, 문예출판사, 2009.
-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이기숙 옮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번역총서 L5 에코리브로, 2011.
- 탕조기, 『회화백문백답』, 광노봉 옮김, 동문선, 2006.

### 학위논문

- 원정연, 『시각적 공간의 경계와 표현』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방복희, 『문(門)과 벽(壁)을 통한 회화적 공간 표현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ABSTRACT

The usual place and the expression analysis of the self

- Centering around my work -

Park, Seol Ah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 is an ideal visual expression which is changed by environment and culture of the period. If examining the exact outline, it is explained by 'an art expressing certain image of world and human aesthetically and formatively' in the head of book, 'understanding of art'. It's safe to say that we are in Eastern area, but living in Western culture. Our food, clothing, and shelter are accustomed to Western culture. But, our ethnicity and traditional culture are remained deeply in life and spirit. The major of this researcher had lots of opportunities to meet Eastern culture relatively and individual interest and subject are expressed by visual art in Eastern and Western culture.

The picture in the area of pure art is more independent and subjective and its form is more free and various than commercial design, advertisement or crafts. It can treat from individual

interests to preference, social problems and politics. And, it can be started from the life and living which are the nearest. Among them, space became a subject of many people as it is near to them. So, it has been a subject of work because of the various reasons and there are full of materials organizing from space to space around us like an air which is not recognized by breathing in our life. This researcher also started this work with the contents for particular space and boundary in daily life by meeting spaces continuously. And, in spring of 2011, this thesis treated the exhibition of 'moment room' as a subject.

Human is living by moving among the spaces continuously. They established buildings in empty places between sky and land and made wall and road, so space was created in the space. Space and existence organized by the materials confirm physical location mutually and accept and remember the spatial form objectively by accepting subjectively them. Sometimes, they are existed abstractly. This researcher examined various meaning for the boundary with an interest in boundary material factor among them. Universal meaning that material or location is a limitation classified by some standard and Yukgyung(六境) organized by existence and outer material can be seen. And, in our life, the boundary has the general appearance space and I organize the universe, not just is recognized as only the standard classifying location simply. It also has material of connection and communication and function of stability and protection. In same place, another boundary can be seen by outer environment. The various

meanings supported particular emotions felt in the place selected in my work.

What do human can feel through the existence of space? We prefer or reluctant some palace and feel stability and uneasy emotion. Space is organized by objective materials, but existences treat it with subjective memory and attitude, so it's possible. Human give and receive effects under the starting point between space and material which have human's own independence at every moment. This researcher considered the interaction as the communication with complicated ego of physical and spirit, defined by Buddhism as color(色) and name(名). Therefore, it expresses the meeting between space and ego. So, this researcher expresses space's formative deletion and changes subjectively and uses colors different from daily life.

This thesis interpreted and studied the picture of 'moment room' expressing objective space of ego and daily life subjectively